

통권 13호
2020. 7. 3

기사연 리포트

기사연

칼럼

2

대중문화로 살펴본 언택트 시대 사회적 관계

5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한국교회의 미래

20

기사연

소식

31

I N G

기사연 리포트

기사연 칼럼

이 민 형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나뉘고 있습니다. BC/AC (Before Corona/After Corona)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는 오늘의 사회는 소위 뉴노멀 (New Normal)의 시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삶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여 새로운 세상에 누구보다 먼저 적응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슴 속에 두려움과 절망, 희망과 꿈을 꾸역꾸역 눌러놓은 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제 이 상황이 종결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 안에 담긴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탓이겠지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의 목소리에도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인들 변칙적으로 돌변하는 바이러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차라리 “예측할 수 없다”와 같은 솔직한 문장에 눈이 갑니다. 동지의식마저 생겨나는 것을 보면 근 반 해가 되도록 시달린 우리네 마음이 어느 정도 체념한 듯 느껴집니다.

본래 2020년 2분기 <기사연 리포트>는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한국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내다보는 글을 담기로 기획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포스트 (post)”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요즘, 미래를 내다보기 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기사연 리포트>를 기획하는 분들과 함께 논의 후, 이번 호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멈추어 주변을 보기”를 테마로 삼아 두 편의 글을 신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연구실장 김상덕 박사는 “대중 문화로 살펴본 언택트 시대 사회적 관계”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람 간의 “거리”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의 방침들이 사회의 마땅한 규칙으로 자리 잡고는 있지만, 이미 오랜 시간 서로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일상이 굳어져 가는 것이 마뜩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져야만 한다면,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인간이 가진 상상력을 통해 나름의 “언택트” 세계관을 구축한 대중문화 콘텐츠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일상화 된 거리두기의 사회”를 이미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글은 경동교회 채수일 목사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제목으로만 예상하면, 이미 다수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서둘러 발표한 글들과 유사한 논지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멈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 글을 읽게 되면 그동안 해결 방안, 혹은 새로운 대안, 찾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인류는 이 상황에서도 나아가야겠지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그 방향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합리적 판단과 과학 기술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종교적 언어를 통해 사회를 돌아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신게 되었습니다.

선불리 안도를 꿈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의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리라 예견합니다. 이 예견 역시 코로나19

의 유행을 예견하지 못한 것처럼 틀리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번 <기사연 리포트>를 통해 함께 이바지하는 사회를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기사연 리포트

대중문화로 살펴본 언택트 시대 사회적 관계*

김 상 덕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들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덮쳤다.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하며 아직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과 제 2, 3의 신종 바이러스의 침입과 전파 가능성도 높다. 한국정부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이번 위기(재난/재해)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코로나19’, 즉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강의나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접촉이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부분적 휴업이나 모임 취소 등 좁은 공간에서 다중접촉이 가능한 형태의 모임 등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방구석 콘서트 등 랜선 미팅으로 대체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감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관계 양상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

다. 많은 일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짐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이버폭력, 피상적 관계 등 부정적인 영향들을 염려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과연 물리적 접촉이 제한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지 묻게 된다.

1.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

아마도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일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나아가 다중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휴교,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¹⁾ 특별히 질병관리본부는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하여 물리적 공간에서의 접촉과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 초기대응이 늦은 국가들의 경우, 좀 더 강력한 형태인 이동 금지령(lockdown)이 내려진 사례들도 많았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하기도 하고, 사람을 피해 숨었던 동물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는 이색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적어도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가히 종말론적인 이미지에 가까우며, 마치 ‘모든 인류가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온라인으로만 한다면 어떨까?’라는 극단적 질문이 잠시나마 현실화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용성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적용이 각 나라마다 다른 실정이지만 무엇보다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 마리아 반 케르크호베(Maria van

* 이 글은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문화선교연구원 공동주최 시네포럼 "Untact 시대, Contact하다"(2020.06.05.) 발표한 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1)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딱퉁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2020. 3. 11) 참조.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0168>

Kerkhove) 신종질병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로 바꾸어 사용하길 제안한 바 있다.²⁾ 그녀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계속 연결돼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사회적으로 고립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의 비대면 연결(이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

사실 ‘사회적 거리’라는 표현에 대한 언급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자회견보다 일주일 앞서 한국의 학자에 의해 먼저 언급되었다. 김용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3월 13일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⁴⁾ 그는 두 표현 모두 공중보건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지역사회’가’ 감염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통하여’ 감염이 된다는 것인지 모호한 지점이 있으며, ‘지역사회’를 감염에 취약하고 피해야 할 것처럼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이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어 개인적인 칩거를 유발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의심과 혐오의 시선으로 보게 될 수 있다는 염려를 내비쳤다.

스탠포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자밀 자키(Jamil Zaki)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대신 ‘원거리 관계 맺기’(distant socializing)를 주장한다. 뇌과학자 및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포옹과 같은 신체적 접촉은 우리 뇌에서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유발한다. 그런

-
- 2)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 2019) Press Briefings (2020. 3. 20) 참조. URL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media-resources/press-briefings>
- 3) 강민경 (뉴스1, 2020. 3. 21), “WHO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 URL <https://www.news1.kr/articles/?3880868> 참조.
- 4) 김용찬 (한겨레, 2020. 3. 13),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 유감” 참조. UR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2499.html>

데 물리적 거리와 신체적 접촉이 줄어들면 정서적인 우울감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한다.⁵⁾ 따라서 비록 원거리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물리적 접촉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소통을 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영화와 대중문화의 시선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디어와 SNS를 주제로 한 영화들은 온라인 인간 관계를 어떻게 상상하고 재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상의 관계 속으로

대중문화는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때론 비판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대중문화 속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및 삶의 방식의 변화에 대해 다룬 영화들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영화 <A.I.>(2001), <Her>(2013), <마더>(2019) 등은 인간과 인공지능기계와의 관계를 다룬다. 영화 <토탈 리콜>(와이즈먼 2012), <레디 플레이어 원>(스필버그 2018) 등은 가상현실 세계를 소재로 한 공상과학(S.F.) 영화들이다. 이런 영화들은 실현가능할 법한 기술을 배경으로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으로 재현한다.

반면에,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집약적으로 증가했고 이런 소셜미디어(SNS)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근거리의 미래를 상상하기에 좀 더 현실감을 높인다.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2010), <디스커넥트>(2012), <아메리칸셰프>(2014), <소셜 포비아>(2014), <언프리티

5) Harmmet Kaur (CNN, 2020. 4. 18), "Forget 'social distancing.' The WHO prefers we call it 'physical distancing' because social connec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Accessed 2020년 5월 24일).
<https://edition.cnn.com/2020/04/15/world/social-distancing-language-change-trnd/index.html>

소셜스타》(2017), 《더 서클》(2017), 《서치》(2018), 《완벽한 타인》(2018), 《Feels Good Man》(2020)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 영화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회 관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몇 가지 주제들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실리적 관계의 욕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2010년 개봉한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의 창설자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사람을 소재로 그것도 당시 20대 중반의 CEO를 소재로 영화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셜 네트워크》는 주커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가 만든 ‘페이스북’의 등장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영화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흥미롭게도 《소셜 네트워크》 개봉 이후로 이른바 소셜 미디어(SNS)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가 말하는 페이스북의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 미국 보스턴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대학교에 재학 중인 주커버그는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지만 연애에는 쩜병이다. 보스턴대학교(BU)에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차인 후 화끈하게 만든 하버드대 여학생 미모 배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남학생들 사이에서 공전에 히트를 기록하는데 이는 그가 페이스북을 만들게 배경이 된다. 결국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탄생은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내면에 갖고 있던 욕망, 자신들이 원하는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싶은 심리와 하버드라는 특별한 인맥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 등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로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주커버그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친구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서툴렀던 그의 인간관계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통할지 궁금증을 남긴 채 연린 결말로 끝이 난다.

2) 피상적이고 단절된 사회를 만드는

영화 <언프리티 소셜 스타>는 이런 SNS 상에서의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의 자아와의 간극 그리고 정서적 동경이나 낮은 자존감 등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이다. 특별히 주인공 잉그리드는 자신이 닮고 싶은 SNS 스타 테일러의 삶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기신 재산을 들고 무작정 테일러가 사는 L.A.로 이사한다. 우연을 가장하여 테일러에게 접근한 잉그리드는 테일러와 친구가 되고 꿈같은 시간들을 지내는 듯 보이지만, 행복도 잠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테일러와의 ‘랜선 우정’마저 깨지고 만다—마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 잉그리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SNS를 통해 그동안 자신의 거짓된 삶의 방식들과 미처 다루지 못한 속앓이들을 털어놓는 것으로 작별인사를 한다. 다행히도 그녀의 자살시도는 미완의 실패로 끝나고 그나마 그녀 곁을 지켜주던 댄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이 영화의 엔딩은 침대에서 깨어난 잉그리드가 자신의 마지막 영상이 SNS 상에서 크게 회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다소 섬뜩한 결말로 끝이 난다.

온라인 플랫폼과 OTT 시장의 발전으로 TV 드라마도 영화 못지않은 퀄리티의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 드라마 <블랙 미러>는 기술 발전과 인간사회의 관계를 비판적인 시선에서 다루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즌 3부터는 넷플릭스에서 제작 및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제작을 맡으면서 내놓은 첫 번째 에피소드인 [추락]은 개인 SNS의 별평점제도에 의해 그 사람의 신뢰도(자산)로 여겨지는 사회를 그린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별평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의 삶보다 소셜미디어 속 이미지 관리에 힘을 쏟는다. 온라인 상의 이미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보여지는 이미지로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SNS 상에서의 자신을 꾸미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 받는 설정은 조금 확장해서 적용하면 한 개인의 사회적 배경(인종,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직업, 경제력

등)으로 평가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은 진정한 자신을 감추고 겉모습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진실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볼까? 한 설문조사에서 SNS 이용 태도와 관련한 질문에 67.4%가 ‘SNS에서는 모두 자신의 행복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해’라고 응답한 반면,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문항에 응답한 비율은 8.2%에 그쳤다.⁶⁾ 소셜미디어는 피상적이고 진실한 소통으로부터 단절된 사회관계를 만든다고 보는 시각이 담겨있는 것이다. 호주에서 모델 겸 소셜 인플루언서인 에세나 오닐은 2015년 당시 18살이었지만 인스타 팔로어 58만명, 유튜브 구독자 26만 명을 이끄는 온라인 스타였다. 그러나 그녀는 돌연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없애고 소셜미디어 속 환상과 가공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출연한 인터뷰에서 “소셜 미디어는 환상입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은 그저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였죠.”라고 말하면서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⁷⁾ 소셜 미디어는 피상적이고 진정한 자아와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부정적 인식이 담겨있는 사례들이다.

3) 폭력적인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영화 속 소셜미디어는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른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였다. 영화 <디스커넥트>는 2012년에 개봉하였는데 <소셜 네트워크>가 개봉하고 2년 만에 등장한 영화이다. 페이스북이 2004년에 세상에 처음 나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꽤나 빠른 대응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상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현대 사회의 변화속도 자체가 빨라진 점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만큼 소셜미디어 사용과

6)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SNS 이용 및 피로증후군 관련 인식 조사” 참조. URL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dx=1580&code=0101&trendType=CKOREA>

7) 허술지 (KBS뉴스 2015. 11. 4) “[지금 세계는] SNS 스타 소녀의 충격 고백 ... “환상에서 나와라”” (Accessed 2020. 5. 26) URL <http://d.kbs.co.kr/news/view.do?ncd=3176442>

그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대중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⁸⁾ 또한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는 소위 보안과 사생활 보호가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제2, 3의 유사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JTBC 영화전문 토크쇼 <방구석1열> 106화는 사이버 범죄 특집을 편성하였는데 영화 <디스커넥트>(2012)와 한국영화 <소셜 포비아>(2014)를 다루었다.

영화 <디스커넥트>는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엮어놓은 유니버스 영화인데, 모두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하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다. 신디는 어린 아들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남편과의 대화마저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곳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채팅 사이트였다. 그곳에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이곳은 채팅사이트를 표방한 피싱 사이트였고 그녀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된다. 지방 방송국 기자인 나나는 성인사이트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하고 특종을 만들지만, 이내 불법취재에 대한 수사망에 오르게 되고 인터뷰에 응한 미성년자 카일은 곤경에 빠지게 된다. 평소 친구가 없던 벤에게 SNS(트위터)는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다. 그런 그를 놀리기 위해 제이슨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벤에게 접근하고 벤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속이고 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다. 벤의 나체사진을 얻게 된 제이슨은 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벤은 수치심에 목숨을 끊는다. 이 영화를 연출한 알렉스 루빈 감독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잘 엮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옆의 사람들(특히 가족)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관계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초래한(혹은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며 SNS에 의존하는 피상적인 관계를 ‘끊으라’(disconnect)고 주장한다. 일부 연예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소셜 포비아>

8) 대중문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재현하는 장이다. 순수 예술의 경우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과정이나 이를 이전에는 표현하지 않은 형태로 표현하는 예술적 창의성을 추구한다. 대중문화가 이런 창의성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필수로 하지 않는다.

는 사이버 해킹과 인신공격과 협박 등의 사이버 문화가 실제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연계된 이야기를 통해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영화 <더 서클>(2017)은 기술발전과 더불어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 사생활 침해문제와 모든 것이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빅 브라더’ 사회를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영화/대중문화는 온라인 매체로 인한 부정적 사례들을 보여주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⁹⁾

4) 긍정적/도구적 재현의 예

그나마 영화 <아메리칸셰프>(2014)는 소셜 미디어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유명 요리사인 칼 캐스퍼는 레스토랑에서 메뉴 결정권을 뺏긴 채 음식평론가에게 혹평을 받게 되고 이에 평론가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그 장면은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들에 의해 녹화되고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되고 또 리트윗되어 퍼져간다. 하루 아침에 해당 레스토랑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푸드 트럭에서 쿠바 샌드위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혼한 전 부인의 도움과 그간 바쁜 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던 어린 아들과 그 여정을 같이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캐스퍼는 요리하는 기쁨을 찾게 되고 아들은 그 과정을 트위터에 소개한다. 그의 음식과 반전 이야기가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욕쟁이 요리사에서 다시 일약 유명 셰프가 되고, 그에게 혹평을 쏟았던 음식평론가마저 그를 찾아와 좋은 조건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 받게 된다. 트위터는 사람을 순식간에 망치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키기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9)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부정적인 사례들이 영화적 소재로서 더 적합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다는 점과 이는 대중들이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걱정과 염려, 공익과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중적 시선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서치>(2018)는 화면 구성을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모니터 등으로만 연출하고 긴박하고 몰입감 높은 이야기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꼽힌다. 영화 속에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겪은 후 데이빗은 딸 마고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마고 또한 아빠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어느 날 마고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3통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데이빗은 딸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된다. 마고의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보지만 마고를 찾을 길이 없다. 영화 속에서 마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이 아닌 SNS를 통해 알게된 친구들임을 알게 되고, 데이빗은 딸의 노트북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딸의 행방을 추적해 가며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 감독의 시선은 소셜 미디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재현한다기 보다 딸이 현실을 도피해 온라인 친구를 찾아가는 통로, 그러다가 범죄에 이용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즉 온라인 미디어는 그저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아버지 데이빗과 딸 마고의 상처, 깨어진 관계, 후회와 회복을 위한 노력 등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화 및 대중문화가 소셜 미디어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영화들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비판점도 존재한다. 일단 매우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 속 비극들이 가능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수의 특수한 사례들의 부정적인 면만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영화적 성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져 간다.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변화의 모습에 무지와 두려움이 컸으며 그 결과 SNS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SNS 이용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SNS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대신 양가적 기능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결국, SNS를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3. 수용자/사용자의 역할의 중요

대중문화는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인류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온라인 미디어와 같은 기술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변화가 기술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매체(기술)결정론적인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매체 혹은 기술결정론이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소통의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주장이다.¹⁰⁾ 예를 들어, 과거 공중전화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전화를 사용하려면 줄을 서야했고 동전을 넉넉히 준비해야만 했다. 하지만 휴대폰이 발명되면서부터는 그런 풍경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매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는다. 여전히 공중전화도 존재하고 집전화도 존재한다. 개인 휴대전화가 생기면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사람들은 전화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전화로는 알 수 없는 비언어적 소통들, 얼굴, 몸짓, 냄새, 분위기, 반응 속도 등은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user)이 결정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용자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져 간다. 과거 청중(audience)은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역할에 그치곤 했다. 반면에 오늘 날 뉴미디어 환경에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 사용자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최근 ‘1일 1깡’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수년 전에 사라졌던 노래와 영상이 어떤 이유로 다시 회자가 되고 유행이 된다. 반면, 부정적 사례도 존재한다. 영화 <Feels Good Man>(2020)은 미국의 유명 만화캐릭터인 페페(Pepe the Frog)가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수용되

¹⁰⁾ 김은미, 『연결된 개인의 탄생: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간관계』(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1-15쪽.

고 변화하는지 과정을 보여준다. 페페가 ‘기분 조타’(Feels Good Man) 말하는 이미지는 온라인 상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이른바 ‘밈’(meme), 번역하면 ‘짤’, ‘유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다. 문제는 페페의 이미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특히 미국 내 극우적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페의 이미지를 백인우월주의와 혐오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공유하기 시작한다. 만화가 는 청년 시절 소소한 우정의 순간들을 만화로 그렸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온라인 유저들은 페페의 이미지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시켰다. 작가의 의도나 모니터 속 페페 보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가며: Untact 시대, 어떻게 Contact 할까?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즉 어떻게 물리적 접촉을 줄이면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까? 미디어와 인간 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질문은 미디어 기술 환경이 바뀌면 인류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묻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질문을 바꿔야 한다. 대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김정기(2019)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해도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특성을 소통의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소통하는 인간, 호모 커뮤니쿠스’로 정의한다.¹¹⁾ 인류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그 소통의 범위를 확장해 갈 것이며 그 방향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통의 주체인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소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미디어 사회 속 관계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대중문화는 미디어로 인한 사회 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한다.

11) 김정기, 『소통하는 인간, 호모 커뮤니쿠스』 (고양: 인북스, 2019), 16장. “나는 존재한다, 고로 링크한다”(340-362쪽) 참조.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디어는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연결시키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김정미(2018)는 뉴미디어 시대 속 인간을 “연결된 개인”이라고 정의한다.¹²⁾ 기술은 그 연결을 확장하고 증폭시키는 도구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미래전망은 양가적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리적 접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무엇이 ‘적정한 사회적 거리’(appropriate social distance)인가를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연결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리로서의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홀로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과 관계맺기(distant socializing)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김용찬이 말하는 사회과학적 의미로서의 ‘사회적 거리’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용어로서 ‘사회적 거리’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들(가령 계층적으로, 지역별로 구분되는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상의 거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 자체가 집단 간의 분리를 유지하려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욕망들에 알리바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노인들같이 사회적 도움이 늘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콜센터 직원들같이 물리적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인시켜주는 아픈 말이기도 하다.¹³⁾

12) 김은미, 『연결된 개인의 탄생』, 230-236쪽.

13) 김용찬,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 유감”.

코로나19 이후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체적 접촉 및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 거리두기’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져올 ‘사회적 관계’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단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사회의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스마트기기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초연결시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특징은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비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도 연결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일정한 ‘사회적 연결’이 가능해진 세상을 말한다. 미디어로 인하여 연결의 확장되거나 연결의 단절되는 것을 염려하는 영화적 재현들도 결국 물리적 거리는 변화하여도 사회적 거리(연결)는 유지하길 바라는 의도들이 내재 되어있는 것이다.

어떤 관계를 상상하는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넘어 ‘적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상상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강민경. (뉴스1, 2020. 3. 21). “WHO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 URL
<https://www.news1.kr/articles/?3880868>

김용찬. (한겨레, 2020. 3. 13).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 유감” 참조. UR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2499.html>

김은미. 『연결된 개인의 탄생: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간관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김정기. 『소통하는 인간, 호모 커뮤니쿠스』, 고양: 인북스, 2019.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딱풀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2020. 3. 11).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0168>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SNS 이용 및 피로증후군 관련 인식 조사”. URL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580&code=0101&trendType=CKOREA>

허슬지. (KBS뉴스 2015. 11. 4). “[지금 세계는] SNS 스타 소녀의 충격 고백 ... “환상에서 나와라””. URL <http://d.kbs.co.kr/news/view.do?ncd=3176442>

Harmmet Kaur. (CNN, 2020. 4. 18). “Forget ‘social distancing.’ The WHO prefers we call it ‘physical distancing’ because social connec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https://edition.cnn.com/2020/04/15/world/social-distancing-language-change-trnd/index.html>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 2019) Press Briefings (2020. 3. 20). URL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media-resources/press-briefings>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한국교회의 미래

채 수 일 / 경동교회 담임목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변화는 너무 충격적이고 근본적이어서,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BC)과 ‘코로나 이후’(AC)로 시대 구분할 정도가 된다. 변화의 충격은 교회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동시에 기회인 것처럼, ‘코로나19’시대는 인류와 교회에게 재앙이자 동시에 은혜의 도전이다.

1. 한국교회에서의 논의와 대응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대응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대면 예배와 집회를 온라인으로 대체 혹은 온-오프라인 병행, 현금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와 방안 모색, 임대료를 못내는 미자립 교회 지원,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교회 지원, 감염된 환자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노숙자와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원 및 마스크 지원 등 대부분 ‘봉사’(디아코니아) 중심의 활동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논의는 주로 모든 모임이 제약을 받는 현실과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 이단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교회를 몰상식한 집단이나 감염원으로 여기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는 ‘신천지’건 일반 교회건 차이가 없었다. 소금물을 입에 뿌리면 ‘코로나19’가 낫는다고 주장하는 교회, 신앙 훈련한다고 인분을 먹이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던 차에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가 더 빠르게 몰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모인다고 해도, 제한된 인원만 모일 수 있는 현실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모두 피해갈 수 없다. 현금감소와 재정 압박은 교회의 구조조정을 압박, 강요할 것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경비감감을 위해 인적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이고, 모든 사업이 축소지향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다. 전통적인 공동체 예배형식, 면대면 교회학교교육, 교역자들의 역할도 변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 같다. 현금과 상회비로 유지되는 기관, 노회, 혹은 총회의 재정압박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전 국민적으로,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온라인 소통이 실험되고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모든 교인들은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더 좋다고 평가하는 교인들도 있다. 이미 ‘혼밥’, ‘혼술’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굳이 면대면 예배나 교육이 아니어도 불만스럽지 않은 것이다. 아직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아날로그 세대들도 학습과정을 거치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빠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1.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회 안에서의 소통과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1-2. 온라인 노회, 온라인 총회의 진행으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선거에서도 총대중심의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총회소속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뽑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1-3. 고령화, 저출산, 반기독교 정서에 더해 감염병의 유행으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 교회의 재정위기와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고, 상회비로 유지되는 노회나 총회의 재정난도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재정위기로 촉발되는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스스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 아니면 ‘하지 않았던’ 교회의 자기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장점이 될 수 있다.

1-4. 교회는 이제 ‘제2의 출애굽’ 시대로 들어섰다. ‘제1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동하는 ‘법궤종교’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후, ‘성전종교’, ‘공간의 종교’로 정착되었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책의 종교’, ‘시간의 종교’로 변한 유대교처럼, 한국교회도 ‘성전종교’에서 ‘제2의 출애굽’, 곧 ‘디지털 유목시대’로 진입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 이야기에서처럼(요 4,21-24), 어떤 공간도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니,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디지털 유목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모색할 일이다.

1-5. 이미 상존하는 무임목사 외에도 앞으로는 무직목사들이 늘어날 현실에서 새로운 교회 형태와 목사직의 다양화가 더 확대되리라 생각한다. 목사의 이중직이 아니라 다중직이 허용될 것이고, ‘웹 처치’, ‘유튜브 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1-6.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번영의 신학’ 대신에, 최초의 창조 후 하나님의 쉼을 시간화한 ‘안식일’(안식년, 희년)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를 시간화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신학적 의미를 숙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¹⁾ 기독교 신학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재구성

1) 위르겐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 생태학적 창조론, 김균진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7,

될 신학은 사실 ‘오래된 미래’처럼, 이미 있는, 그러나 교회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실천되지는 않은 신학의 회복일 것이다. ‘희년신학’, ‘생태신학’, ‘생명신학’, ‘공공성 신학’, ‘에코페미니즘 신학’ 등이 이미 있다. 새로운 신학이론이나 담론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신학실천(Theopraxis)의 문제라고 하겠다.

2.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인류와 교회에게 재앙이자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은혜인 이유는 무엇인가?

2-1.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재앙인 것은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3개월 동안(2020년2월부터 5월까지) 10만 명을 넘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6월 1일 현재 사망자는 10만 6천여명). 이 사망자 숫자는 한국전쟁(1950-1953, 36,500명), 베트남 전쟁(1961-1975, 58,000명), 이라크(2003-2011, 4,500명)와 아프카니스탄(2001-오늘까지, 2,000명) 전쟁 등 총 44년간에 걸친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 군인들 숫자보다 더 많다. 6월 1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83만 여명, 수 백 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잃었다. 불법체류자, 의료보험미가입자 등은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 재해와 재난도 불공평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4월초 시카고에서는 흑인이 전체인구의 32%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에서는 67%를 차지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시에서도 5월 30일 현재 흑인과 히스패닉의 인구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백인보다 두 배나 높다. 이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고, 의료보험 미가입자도 약 3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지난 3월 말부터 10주 동안 발생한 미국의 실업자 수는 4,08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이 20%에 이를 전망이다. 사라진 대부분의 저임금일자리들은 대부분 유색인종이 종사하는 직종이다.²⁾

435 참조.

2) 이강국(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부교수),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한겨레신문, 2020년6월2일(화),31면 참조.

2-2. 2020년 6월 10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720만 명, 사망자는 4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11,902명, 사망자는 276명. 이는 이전에 있었던 다른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치명율에 비추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그 자체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파생된 장기경기침체가 더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24일 현재, 공장가동중단조치와 기업의 대규모 일시해고 등으로 5주간에 2,650만 명이 실직했는데, 이는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³⁾ 우리나라도 고용충격에 취약한 노동자가 728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고용보험미가입자가 459만 명이다.⁴⁾

2-3. 경제적 장기침체로 저성장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되면,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을 보이게 된다. 나라들은 저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위기는 세계적 규모로, 장기화될 것이고, 대량실업, 양극화와 인종주의는 더 심화될 것이고,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더 커질 것이다. ‘코로나로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라는 불만은 과장이 아니다.⁵⁾ 그런데 문제는 일국체제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막을 수도 없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도 없다는데 있다.

주로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해온 한국의 사정도 우려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저임금 서비스산업과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1년 전에 비해 취업자가 47만 6천명 감소했고,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시휴직자도 113만 명 증가했다. 이는 하위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의 소득

3) 국민일보, 2020년 4월 24일, 12면 보도 참조.

4) 한겨레신문, 2020년 4월 24일, 12면 참고.

5) 김창엽, 우리에게 코로나19는 무엇인가, in: 포스트 코로나 사회 - 팬데믹의 경험과 달라진 세계, 글항아리, 2020, 18.

은 전년에 비해 7% 증가했고, 하위 10%가구는 3.6% 감소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주로 빈곤층에 집중되고 있고, 재난이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다.⁶⁾

2-4.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역설적이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이제 모두 함께 죽든지 아니면 함께 살든지 해야 한다는 집단적 성찰로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재앙의 시대적 표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재앙은 ‘은혜의 표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물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던 우리 자신과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명과 역사도 거리를 두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잠시 멈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우리가 걸어 온 뒤를 돌아보게 했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인류가 추구해온 지구적 규모의 약탈적 자본주의의 발전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지 숙고하는 기회로 삼게 했으니 은혜이다.

‘코로나19’는 개인의 생명이 우주적 ‘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생태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었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김종철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오로지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무절제한 탐욕의 정신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바람에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포함한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파괴한데’ 있고, ‘거기에 자본, 물자, 사람의 대량이동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논리까지 합세하여 전개된 파국적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소비와 산업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정지 내지는 둔화되자 대기가 청명해지고, 소음이 잦아들고, 자연 만물이 생기를 되찾은 것은 종래의 생활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확연한 증표’라고 한다.⁷⁾ 일시적인 ‘잠시 멈춤’이 하나

6) 이강국, 같은 글, 참조.

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으니 이것도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인류를 분리해온 모든 보이는 장벽, 인종적, 민족적, 국가적, 계급적, 남녀노소의 장벽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이제 인류는 힘과 지혜를 모아, 사랑과 연대로 함께 살든지, 아니면 함께 죽든지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와 거기에서 파생된 경제위기가 글로벌 위기인 것처럼, 인류의 대응도 글로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유발 하라리의 지적처럼, ‘인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장기 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큰 재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21 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가 될 것’이다.

3. ‘코로나19’ 재난은 분명히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변화가 더 크고 깊은 위기로 갈지, 아니면 인류를 새로운 깨달음과 공생의 기회로 이끌지는 전적으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학습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달려가는 의료진들, 자기는 살만큼 살았으니 젊은이에게 산소 호흡기를 주라고 하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 자기 몫의 마스크를 사지 않고 더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민, 헌혈하고 성금을 모아 보내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에게 기꺼이 자가 격리 공간을 제공한 시민들, 시도 경계를 넘어 환자들을 받아 치료하는 자치단체들, 임대료를 깎아주는 집주인들, 영세 상인들을 돕기 위해 착

7) 김종철, 코로나 환란, 기로에 선 문명, 한겨레신문, 2020년4월17일(금), 22면 참조.

한 소비에 나선 시민들, 이름 없는 이들이 모두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야말로 과연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는 표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이름 없는 시민들의 이야기들은 우리 가슴을 자부심과 감동으로 채운다. 지금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재기, 각자 도생, 다시 강화되는 인종주의, 국경폐쇄, 자국중심주의 현상과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해가는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모범국가, 우리 국민이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시민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제는 단지 ‘K-방역’에서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세계의 생태계와 경제 질서를 새롭게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일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바로 이 일에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기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나 신학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비현실적인 당위적 주장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뿌리내린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생명 중심의 삶의 실천’, ‘반생명적 문화의 제어’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서, 교회공동체 차원에서, 한 나라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공정무역운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란시스코 판 데르 호프 보에르스마 신부가 ‘현재의 병폐를 고치기 위한 믿을 만한 대안이나 분명한 제안이 없다면, 저항은 무의미하다. 현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고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반대한다는 것은 제시하는 것이다.⁸⁾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도 중요하고,⁹⁾ ‘K-방역’처럼, 우리나라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상생의 경제’,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한국교회의 과제이다.

8) 프란시스코 판 데르 호프 보에르스마, 가난한 사람들의 선언: 사회연대경제, 아래로부터의 대안, 박형준 역, 마농지, 2020, 103.

9) 오스트리아는 전후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 좌우가 협력해 국정을 관리하는 대연정, 합의제 정치를 발전시켰고,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오스트리아는 이런 두 겹의 합의 체제를 바탕으로 선순환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백기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골든타임’, 한겨레신문, 2020년6월4일(목), 22면 참조.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전망, 강요된 부정적,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이런 저런 전망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결국 경제일 것이다. 장기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대량실업과 경제위기는,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중인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재원이 문제이고, 경기침체가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세계적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준비축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평화적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4.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할까?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기로 들어선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더 이상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교회의 양극화(부자교회와 가난한 교회,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도 심화될 것이다.

2019년 10월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개신교의 전 교단에서 교인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교단별로 보면, 예장고신이 2006년 50만 1036명, 기장이 2007년 33만 7570명, 감리회가 2009년 158만 7385명, 예장 합신이 2009년 15만 6508명, 예장 통합이 2010년 285만 2311명, 기성이 2011년 59만 431명, 예장 합동이 2012년 299만 4837명이었다. 그런데 2018년 현황을 비교해보면 총 128만 2,947명(16.2%)이 감소했다. 인원수로는 예장합동에서 33만 8,107명이 줄었고, 예장통합은 29만 8,084명, 감리회는 29만 8,074명이 줄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세 감소 수치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교인 수는 2013년 28만 9,854명이었는데, 2014년 28만 4,160명, 2015년 26만 4,743명, 2016년 24만 109명, 2017년 23만 5,077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23만 6,036명으로 처음으로 959명이 늘었다. 한 해에 적게는 5천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고령화나 저출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와 공공성 상실에서 비롯되고, 지속적이라는 것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지속되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모두 감안하고 우리 교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

4-1.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예배 참석 제한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교인감소와 교회의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개교회 안에서 재정운용의 원칙과 방향 정립, 노회와 총회 차원에서 신학교육의 제고, 교회폐쇄 혹은 통폐합, 교역자 실업대책, 교역다양성 제도화 등을 숙고해야 한다.

4-2. 전 국민의 온라인 학습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개교회 차원에서 하기 힘든 콘텐츠 제작과 공급, 네트워킹은 총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4-3. ‘코로나19’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에 있기에 지금까지의 발전모델을 반성하고, 현대산업문명이 지닌 반생태적 성격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현대산업문명이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보건 의료 영역에서는 지역 경제의 자족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 기반한 교회들이 지역순환경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4-4. 중국의 생태운동가인 윈테전은 자연으로 돌아가 순리대로 속도를 늦추어 사는 생태마을, ‘슬로 푸드’, ‘슬로 라이프’를 추구하고 그림으로써 자연자원 소비를 줄이고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생계 방식을 제시했는데,¹⁰⁾ 이것은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고백의 문제라고 하겠다.

4-5. 위기는 새롭게 문제를 설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원칙들

10) 안희경,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 경향신문, 2020년6월11일.

을 치워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람시가 말했듯이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의 죽음 속에 들어 있기에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는 법이다.¹¹⁾ 우리의 과제는 위기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보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다시 생각하는 일이다.¹²⁾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의지를 가진 개인 혹은 공동체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고, ‘디지털 유목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11) 프란시스코 판 더르 호프 보에르스마, 가난한 사람들의 선언 - 사회연대경제, 아래로부터의 대안, 마농지, 2020, 28.

12) 프란시스코 판 더르 호프 보에르스마, 같은 책, 29.

기사연 리포트

기사연 소식

1.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동참하여 재택근무 및 탄력적 근무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기 예정되어 있었던 외부행사들을 잠정 중단하고 하루 속히 정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및 미디어를 통하여 대안적인 형태의 연구 및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부터 유튜브 방송 **“신박한 기독교수다쇼 [어쩌다 쌀-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네 남자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와 한국교회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수다 살롱입니다. [어쩌다 쌀-롱]을 통해 차분하고 교양을 유지하되 또한 비판적인 의식으로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1v7sU29EqqUeSZH4QZAtMA>

3. 코로나 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사연 리포트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사연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한국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한 기독교 관점에서의 정확한 분석과 전문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기사연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연 연구사업 후원계좌: 신한 100-02515382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리포트> 통권 13호

발 행 일: 2020년 7월 3일

발 행 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5층

전 화: 02) 312-3317

홈페이지: www.jpica.org

이 메 일: cisjd@jpica.org